

창립 2주년 기념

분단40년의

여성현실과 민족통일



● 평등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인간화 운동

때 : 1985년 6월 22일 (토)

곳 : 흥 사 단 강 당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397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420911
54분

00003973

00

여성평우회

여성차별의 사회 여성운동의 물결 여성해방의 이론

동녘의 여성운동관계 시리즈

여성의 지위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줄리엣 미첼 지음 동녘선서 19

하늘의 절반

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클로디 브로이엘 지음 동녘선서 24

여성과 노동

한국의 노동현실과 여성
이명희 지음 동녘문고 3



도서출판 동녘
313 / 6080

“동녘”은 이땅의 어둠을 밝히는 의식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여성평우회가 두뚝을 맞아 “분단 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이라는 주제하에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 40년을 여성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만 나이 아직 어리고 연륜이 짧아 외람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있었던 ‘여성문화 큰 잔치’ 등 일련의 집회를 통하여 여성운동의 전반적 전기를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로서 분단이 낳은 여러 국면을 새로운 차원에서 고찰하는 일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민족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족분단으로 이어지는 격랑기 속에서 여성은 이중 삼중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타 민족의 수탈적 억압을 감내하며 한편으로는 광란의 대동아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어야 했던 상처가 미처 아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데올로기의 허깨비가 일으킨 전쟁에 남은 가족마저 산산이 흩어지는 아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 명목하에 이땅에 들어온 외국주둔군들에게 짓밟힌 가난한 이땅의 처녀들은 정확한 숫자도, 이름 한줄도 제대로 알길이 없습니다. 불과 수년 전 일본 제국병사들의 위안부로 정신대에 끌려가면서 자기가 속아가는 줄도 모르고 수줍게 웃던 순이의 얼굴이 기억에 생생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러한 뼈저린 일들을 돌아보고 상처 아물어 다시 새 힘줄기를 기다릴 마음의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민족중흥 다시 말해 조국근대화니 고도산업사회니 높은 GNP 성장이니 하는 고지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반도 민족분단 꼬박 마흔 살을 헤아리는 마루턱에 서서 숨 잠시 몰아쉬며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쓰린 상처 채 낫기도 전에 또 다시 쌓이기만 하던 많은 아픔들과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그들에서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고스란히 이자리로 옮겨봅니다.

수 많은 눈물 속에 사라진 ‘어머니’들과 얼굴없는 ‘양공주’들과 산업의 역군이면서도 차별받는 ‘공순이’가 바로 40년이나 계속된 분단 역사의 주인공이며 곧 오늘을 사는 삶의 주역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는 더 이상의 슬픔도 억압도 있을 수 없다는 대명제하에 눈물 쓰게 삼키며 아직도 악령처럼 살아있는 사슬을 끊고 나아가 남녀평등한 통일민주사회로 통하는 길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어린 동참으로 이 자리를 힘차게 하시고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이룩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 성 평 우 회

분단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

이 효재 (이화여대 교수)

우리는 그동안 분단 40년의 한을 품은 채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 이 목숨 다바쳐 통일, 통일을 이루자..” 라는 노래를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배우며 불렀다. 통일이야말로 이 겨레를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외치며 노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통일을 향한 의식적 노력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이 왜 우리를 살리는 절대적 당위인지를 진정 느끼며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우리 여성들은 민족통일이 여성해방이나 우리 모두의 인간화와 직결된 것임을 진정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그동안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보건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이 분단시대의 민족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식을 결여한 채 남녀평등을 요구하며 이룩하려는 여권의식의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여성을 차별하고 비인간화시킨 가부장제 유산이 현대적인 산업사회구조 속에서 확대강화되어 그 양자가 분단사회의 유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여성운동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간 우리 여성들의 교육정도는 일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산업화의 역군”으로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근대화론자들은 여성들의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여

성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민주적 권력유지와 부계혈통계승을 위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자본주의 산업화를 위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려는 국가정책에 기반한 것이어서 사회구조는 남녀불평등과 빈부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분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명분과 구실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여권의식에만 머물러 온 것이다. 남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관점하에 우리의 민주헌법이 여성의 인권과 민권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음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고 평등한 인권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계속 억압당한 채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에 침략당하며 살아온 민족으로서의 수난과 지배권력의 유지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 민중의 가난 속에서 가족과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부담을 걸머지고 살아온 여성들의 한이 이 분단사회로 이어져 계속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제껏 통일의 노래를 형식적

사실상 그동안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보건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이 분단시대의 민족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식을 결여한 채 남녀평등을 요구하며 이룩하려는 여권의식의 차원에 집중되고 왔다. 여성을 차별하고 비인간화시킨 가부장제 유산이 현대적인 산업 사회 구조속에서 확대 강화되어 그 양자가 분단사회의 유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다.

으로만 불러 왔을까? 왜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통일을 두려워하며 이에서 도피해 버리려는 분열증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사실상 과거 40년의 분단 사회는 우리를 공포와 불신상태로 몰아왔다.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한 국제냉전 체제에 편승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남북한의 지배층은 서로 남진통일, 북진통일로 위협해왔다. 제각기의 체제를 중심으로 통일하여 지배하려는 통일정책으로 대립해 왔다. 그리하여 민중을 공포와 불신으로 사로잡아 왔다. 이것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케 하였으며 한반도를 미·소의 군사전략의 전위기지로 만들어 핵전쟁의 시험대에 올려 놓았다. 이러한 국제현실에서 남북은 군사력만을 팽창시켜 동족을 향해 서로 위협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대립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상의 자유, 남존여비 및 노동의 귀천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꿈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고 외국으로 도피해 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공포와 절망속에 좌절하며 권력에 무력하게 복종하고만 있지 않았다. 분단을 극복하며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인간적 요구는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

통일운동으로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 비민주적 비민족적인 분단사회의 질서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을 창조하려 한다. 공포와 불신을 사랑으로 극복하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간사회로 향한 용기가 약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분열되고 대립된 세계 질서에 얽힌 한반도에 분단을 극복하는 새역사 창조의 꿈을 안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행세하려는 세력이 대두되었다. 여성들도 이 민주·통일운동의 대열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통일에의 희망과 의지를 키우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여성운동의 과제는 여성들을 구속하고 비인간화시키는 분단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일이다. 분단유지의 구조를 여성문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여성들이 이 분단사회에서 왜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단과 관련시켜 의식해야 한다. 이 입장에서 모든 개인적 및 구조적 원인을 계속 규명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여성운동을 더욱 확대시키며 여성의 민주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만이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극복하며, 민주통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분단에 의한 피해적 상황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대립에 기반한 분단사회는 우리에게 반공을 전제로 한 사상의 부자유와 사회적 보수성을 강요해 왔다. 이 보수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간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가부장제도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시대에 있어서 민주헌법은 여성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형식적으로나마 부여하였다. 정치에 유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가 법적으로나마 보장되었다. 이러한 평등이 실제로 실천되기 위하여는 여성들의 권리의식과 민주적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교육정책과 교육방법에 있어서나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적 개혁이 계속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지배권력은 봉건적 신분사회의 가장 원초적 기반인 가부장 제도가 이 시대의 가족제도로 합법적으로 존속시키고 있다. 분단을 유지하려는 보수세력이 남존여비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와 부계가족에 예속된 지위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여성이 인격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배권력은 권력유지를 위해 가부장제도를 충효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삼으며 외세에 의존하는 산업화 정책에서 여성을 외화획득을 위한 저임금노동력으로 묶어두는 사회문화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여성의 희생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강요되면서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요구해 온 가족법의 민주화를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계속 묵살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완전히 말살당해 온 것이다. 이 제도는 여성의 가치와 존재를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아들 낳는 도구로서나 성욕충족을 위해 서어비스하는 소첩의 존재로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집과 조상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우

리의 호주상속제도는 타성의 양자를 허용하지 않고 남편의 아들을 반드시 낳아 바쳐야 하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여성들은 노예화하며 남성들의 의도와 성적 횡포에도 참고 견디어야 하는 부덕을 강요해 온 것이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며 여성의 존재를 자본주의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 전통을 이용하여 이 분단시대의 지배권력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산업에서나 관광산업에서 여성의 몸과 노동력을 외화획득을 위한 자원으로 삼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시켜 온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소위 관광기생을 외국관광객 유치의 선전자료로 삼는 것을 묵인해 왔다. 그리고 성적 향락산업을 육성하는 데서 퇴폐적 성문화가 조장되고 있다. 관광산업과 향락산업이 대기업을 함으로써 매춘여성의 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미군의 진주가 가난한 여성들의 매춘을 조장하며 퇴폐적 성문화로서 우리사회를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위에 경제성장의 결과도 자본주의의 물질주의가 가정의 성생활을 타락시키며 여성들을 성적 향락의 도구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춘이 만연됨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들을 성적 향락과 퇴폐적 문화로 타락시키고 우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 타락이 분단사회를 유지시키며 지배하려는 권력층의 목적에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순결과 정절을 여성의 목숨보다 중요시해 온 우리의 전통적 가치마저 부인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딸들을 타락의 삶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분단은 또한 우리 민족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왔다.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이 각기 지니고 있는 자원이 효과적으로 상호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 기반을 파괴한 것이다. 따라서 분단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결정적으로 대외의존적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우리의 경제는 해방이후부터 50년대를 통하여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한 상태였다. 60년대 이후 박정권이 가난에서의 해방과 자립경제를 이룩하겠다는 명분으로 급격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 경제정책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농업과 농민을 주변화시키는 수출주도형 산업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농민과 그들의 이농민 자녀들로 구성된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국가의 부를 이룩하였으며, 국내의 자본계층을 단시일 내에 살찌우게 된 것이다. 특히 농민, 노동자들 중에서도 농가의 부녀자들, 수출산업의 젊은 근로여성들, 그리고 도시빈민 가정의 부인과 어린 딸들은 이 대외의존적 산업화 정책에 가장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의 희생 위에 국가의 경제가 물량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여 소위 중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정부는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혜택이 노동자, 농민 및 도시의 가난한 계층의 가정과 여성들에게까지 고루 분배되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경제가 자립의 기반을 상실하고 대외의존성이 심화되는 데서 외국자본과 국내대기업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은 강화되고만 있다. 외국기업의 유치는 이제 전산업분야로 확대 개방되었으며 금융시장의 개방과 수출업의 모든 품목이 100% 개방의 목표로 급격하게 치닫고 있다. 이러한 소위 개방정책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합법적으로 억제하고 탄압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90년대를 내다보는 남녀노동자들의 지위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제도적 보호없이 국내외 자본의 횡포에 계속 착취당하며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추진해 온 농업생산의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의 자급자족의 비율은 1980년도 59.7%로 저하되었다. 경제의 모순은 가중화되어만 가고 있다. 대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가의 생존은 고달프기만 하다. 계절없는 다수확영농으로 부녀자들의 3중·4중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적자수지를 못 면하며 부채는 증

가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은 농업의 소득을 더욱 필요로 하여 남편과 아들은 해외노동자로, 딸들은 도시공장으로 계속 내보내며 농업노동을 이젠 부녀자들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영세농가의 부녀자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기의 소농생산자로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농촌의 임노동자로서 가계소득을 보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적 수출산업의 모순과 수입의 개방정책은 소비시장의 모순을 가중시키며 그 부담을 소비계층을 이루는 여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수출기업은 국제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덤핑함으로써 생기는 적자를 국내소비시장에서 매꾸므로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국제시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물건을 사왔다. 이런 처지에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외제 일상용품이 국산품보다 품질이 좋고 싼데서 외제품 선호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부유층으로 갈수록 유한계급의 전시 효과로서나 상류계급의 상징으로 외제사치품의 선호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의 소비성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 편승하여 건전한 자립경제를 좀먹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분단을 유지하는 대외의존적 구조의 피해자로서 사치성 소비계층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일반소비계층의 여성들도 수입개방으로 인한 상품시장의 피해자로서 모순의 부담을 걸머지게 되는 것이다. 수출상품의 범람과 소비자를 매혹하는 상품, 선전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며 상품소비의 노예로 전락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사치스런 외제상품의 범람과 상업시장의 활성화로 소비자의 기호와 생활양식을 대외의존적으로 만들며 경제발전의 환상 속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분단상황에 안주하려는 심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왜곡된 환상의 피해자로서 외제상품을 소비하는 노예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다. 앞으로의 소비자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성들로 하여

금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며, 대외의존적 상품시장을 배격하는 입장에서의 통일운동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대외의존적 경제정책은 또한 농민의 이농을 대량 촉진시킴으로써 도시 빈민계층을 조성시켰다. 이농민들 중에는 독신으로 이농하여 수출산업에 미혼의 젊은 노동자로 흡수되는 한편 혼인한 부부들이 가구단위로 이농하여 도시비공식부문의 임시노동자로서 빈민계층을 형성해왔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하청구조에 계절적 또는 임시적인 노동력으로서 흡수되고 있다.

이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혜택도 없이 가장 낮은 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러한 임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한 가계소득으로 인한 가족적 생존의 부담은 또한 가난한 가정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이 걸머지게 된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이룩되는 데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녀들의 복지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제도로서 재분배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가 중진국의 단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계층의 주택문제, 의료보장 및 생계를 책임진 부인들의 모자복지제도 등의 뒷받침이 사회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의 회생을 담당한 이 계층에 응당 돌아가야 할 경제적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방에 국가 예산의 30%가 할당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분단구조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자들인 것이다. 결국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38선을 넘어온 월남 가족이나 6·25 동란으로 인한 이산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분단 상황을 유지하려는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 구조하의 고도성장의 단계에서 농민과 노동자가족들은 생

활안정을 위해 피땀흘려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가난의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도 분단시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이다. 사실상 산업화한 경제구조에서 일반민중이 겪는 피해적 고통은 비인간적 중노동과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생활, 각종 범죄가 난무함으로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사회 환경, 더우기 인간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이 사라진 불신 풍토의 만연, 그리고 인권이나 인격의 존엄성보다 외화획득이나 경제적 이윤추구를 중요시하는 황금만능주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일단 사회의 피해자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사회의 피해자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자가 된 남편과 자녀들을 지닌 가정과 여성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해방직후부터 과열된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과 정치적 투쟁, 그와 연결된 노동운동이나 농민 운동에 참여했다가 좌익으로 낙인찍힌 자들, 6·25 동란을 통해 보복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희생당하며 사상적 입장을 강요당해 자진 월북한 남편이나 아들을 둔 가정의 여성들의 고통은 단순히 월남이나 피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의 경우와는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공식통계인 일천만 이산가족의 문제점도 분단의 직접적 피해가 그정도의 통계적 비중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이산가족의 경우는 그들의 이산의 원인이 사상적 문제에 있지 않는 데서 그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중에는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리의 현체제 속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좌익사

상가로 낙인찍혔다거나 그 입장에서 활동한 대역죄인으로서 정죄당한 경우도 있다. 가족이 죽었거나 남북 어디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아내나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공개하여 호소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좌우익 사상의 대립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대역죄인의 아내로나 어머니로서 이 시대를 그들에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우리는 그들의 개인적 문제로 돌려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특수한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피해와 공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여성운동의 방향 모색은 남북의 장벽과 동서냉전의 사상적 대립을 초월하여 남녀가 다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활공동체나 지역사회공동체를 연구하며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젖어온 우리의 의식, 관습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르며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인간사회의 꿈과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단사회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도경제성장이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기반한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남존여비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사상적 대립의 굴레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상황이 여성들의 사상적 및 정신상태를 유아상태로 머물게 하고 있다. 여성은 맹목적 모성애로 가족 중심의 이익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정체감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여성운동이 국제적 유대 속에서 세계여성운동으로 개방되고 확대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사상적으로 아직도 가정을 자신의 우주로 삼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

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곧 용공주의자로 낙인찍히는 위협이 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이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이중적 성윤리와 가정생활의 질서 및 모든 사회질서에 대해 타사회와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 질서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회를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여성들이 길러가야 할 것이다.

즉, 강요된 분단에 의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구조적 현실과 우리 민족 특히 여성의 피해적 현실을 밝히고 이 현실의 원인을 파악하여 알리는 일이 분단사회를 극복하는 민주·통일운동이 아닐 수 없다.

분단극복을 위한 여성운동의 방향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적 고통과 피해적 삶은 여성의 삶과 의식에 이렇게 도전해 오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여성들의 정당한 요구가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고 병든 이 사회적 질서와 구조를 극복하려는 민주·통일운동과 직결되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일찌기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근우회를 조직한 우리 선배들이 여성운동의 과제를 민족해방과 연결시켜 의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여권의식으로만 이해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족적 공동체의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단시대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여성지위향상만을 요구하는 문제의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외세의존적인 분단사회를 공동체적

으로 극복하려는 주인의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제각기 인간적 삶을 요구하는 주인의식이 분단된 조국과 분열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는 주인의식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이 분단사회로서 더욱 왜곡당하고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이러한 주인의식은 먼저 우리의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민주화시키는 의지로 발휘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박탈하려는 국내외의 억압적 권력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하며 이것을 배격하고 대항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여성으로서 민족과 사회에 대한 민주적 주인의식이 심화될 때 각 분야에서 피해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며 그 구조적 모순과 원인을 더욱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의식이 분단사회의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때 여성들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며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추진해 온 가족법 개정운동, 지역 사회시민운동, 여성노동운동, 여성농민운동, 성폭력의 문제 및 여성교육문제를 재평가하며 재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예로써, 가족법 개정운동을 앞서 지적한대로 분단사회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가족법개정이 법률 개정만을 목표로 하는 미시적 운동의 차원에만 머물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이 운동은 가정의 민주화를 위시

해서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과 연관되어 민주화운동의 과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도가 민주화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가족법개정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천적 과제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부부관계를 위시하여 가정에서 남녀역할이 민주적인 협동관계로 새로워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민주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진데서 사회생활의 민주화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민주화의 실천적 운동은 이 분단의 구조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며 피해당하는 피해자의 의식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공동체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체의식을 분단사회구조 속에서 피해당하는 모든 민중과의 연대의식으로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주통일운동의 의지를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 속에서 우리의 통일의 의지를 노동운동, 농민운동, 소비자운동 및 기타의 모든 분야의 운동에서 실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 분단으로 인해 가장 희생당하는 피해자임을 자각할 때 고통받는 분단민족의 모든 아픔을 가장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며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희생된 분단가족의 고통이며 대외의존적 경제성장에 희생당하는 노동자 농민의 억울함을 공감하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운동은 민주·통일운동의 선봉적 역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아아아— 이어도 사나 으샤으샤

1. 물로야 뱅베에에—엥 돌아진 섬에에
먹으나 굶으나 아아아— 물질을 하여 으샤으샤
2. 우리 어머어어—엄 날 날찍에에—
어느 마당에 아아아— 미역국 먹어 으샤으샤
3. 우리 배는—은 소뉘배 요오—
남의 배는— 아아아 쭉대 뉘배라 으샤으샤
4. 성님 성님—임 사촌성님 임—
시집살이가 아아아— 어떻게 까 으샤으샤
5. 한푼 두푼—은 모은 돈도 오—
낭군님 용돈에 아아아— 모자라간다. 으샤으샤
6. 이어문은—은 저승물이요 오—
이어문은—은 아아아— 저승문이라 으샤으샤

영경귀 꽃

영경귀야 영경귀야 철원평야 영경귀야

난리 통에 서 방 잃고 홀로사는 영경귀야

갈퀴손에 호미잡고 머리위에 수건쓰고

콩밭머리 주저앉아 부르나니 님의 이름

영경귀야 영경귀야 한탄강변 영경귀야

나를두고 어딜갔소 쭉국소리 목이메네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삶

환갑을 넘어서도 물질을 하는 해너
고정씨씨의 가슴에 맥힌 한(恨)은 4·3 사건
으로 빚어진 제주도 민중들이 저마다 품고 있
는 한이기도 하다.

우리어머니 잠수고씨

잠수(潛嫂·해너) 고정씨씨는 제주도에서 시의 버스를 타고 일주도로를 따라 반시간 남짓 걸리는 뒗개라는 해촌(海村)에 살고 있다. 이 섬의 여녀 해촌과 마찬가지로 뒗개 마을 주민들도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활로 영위한다. 어업이라고 하지만, 남정네들이 밭동선 타고나가 갈치밭에 밤낚시 드리우는 것 가지고는 큰 소득이 못되고 아낙네들이 마을 앞 바다에서 물질로 채취하는 소라, 전복, 해삼 따위가 이 마을 어업의 대종을 이룬다.

고씨는 재작년에 환갑을 지낸 나이이지만 아직도 물질을 그만두지 못한다. 십년전만 해도 '상잠수' 호칭을 듣던 그였다. 상잠수라면 열길 수심 즉 10m 가까이 자맥질할 수 있는 유능한 잠수를 말한다. 그만큼 숨이 길어야 하니 물속에서 2분이상 건디는 잠수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이제 고씨는 기운이 예전만 못하여 물 속 서너 길만 들어가도 숨이 턱에 닿게 가쁘고 노안(老眼)으로 시력마저 나빠져 물건 찾기가 더디다. 그래도 그녀는 아직 물질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잠수의 죽은 녀이 저 푸른 물 속 산호수 숲에 갇힌다고 했거니와 숨이 다할 때까지 물질을 하고 싶단다. 예전처럼 살림이 곤궁해서가 아니다. 큰아들은 섬 동끝 성산포의 어느 국민학교 교사로 있고, 한 집에 살고

있는 작은아들 내외 역시 억척스러워 해마다 주정(酒精)용 절간 고구마의 소출을 남보다 한 섬이라도 더 내는 상농군인데 주위의 부러움을 사면 샀지 결코 웅색한 살림이 아니다. 두 자식이 여러 번 빌다시피 물질을 만류해 보았지만, 고씨는 증내 듣지 않는다.

“어머님, 이제랑 제발 물질 그만하십서. 그 모진 고생을 해서 우리 두 성제를 이만큼 사람되게 키워냈으면 이제 편안히 쉴 때가 아니우파?”

“난 본디 일만 알지, 놀 줄은 모르는 사람이여. 관덕정 설령탕국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놀아 본 사람이나 놀 줄 알지, 난 놀 줄 모른다. 뒗집 할망 보라, 일흔 두 살이여. 나도 한 십년은 더 물에 들어사 하키여(하겠다).”

고씨의 일생을 일관하고 있는 고달픈생활은 한 시대 저쪽, 그러니까 스물 다섯 청춘 나이로 남편을 비명에 잃은 뒤부터 시작되었다. 해방된 지 3년 만에 당시 25만 인구의 섬 전체를 아비규환 속으로 휘몰아 넣은 세칭 '4·3 사건'이라 불리는 대난리에 수만 도민이 희생되었다. 그 대부분이 밭 고랑 수나 해아릴 줄 알 뿐, 사상이 무엇인지 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농투사니들이

었다. 고씨의 남편도 그러한 덧없는 죽음 중에 하나였다.

해방직후 3년간의 제주도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좌우 양대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으로 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때는 좌익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좌익의 격렬한 구호에 부화뇌동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 불장난일 줄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먼저 3·1사건이 있었다. 2만명 가까운 군중이 운집한 그날의 3·1절 행사는 좌익의 과격 청년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고 이에 맞선 경찰의 발포로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불상사로 뒤바뀌 버렸다. 해방된 섬에 최초로 터진 이 총소리는 온 도민의 가슴에 세차게 메아리쳤다. 일제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도지사가 일제의 주사 출신이고 경찰 또한 일제 순사 출신이 대거 기용되고 있어 관이 친일파 일색이라고 지탄받고 있던 터에 발포까지 했으니, 민심이 들끓어 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흥흥한 민심에 편승해서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 좌익이었다. 도처에서 발포 경관의 처벌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 파업이 잇달았다. 심지어 하급 공무원까지 파업에 동조하여 관공서가 마비되었다.

마침내 좌익이 불법화되고 검거령이 떨어졌다. 이제 좌익 골수분자들은 물론 별다른 주전 없이 부화뇌동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줄지에 좌익 폭도로 지목되고 말았다.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경찰부대와 700명 가량의 서북청년단이 입도했다.(서청은 얼마후 현지에서 경찰, 경비대로 임관되었다)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공비연혁」(1971)에서 “경찰의 강압적 치안으로 대민관계의 악화”라고 지적했지만 무엇보다도 서청에 대한 주민의 원한은 뼈에 사무친 것이었다. 그들은 섬 젊은이라면 옥석을 가림 없이 무조건 불온시하여 체포, 고문으로 호된 탄압을 가하고 심지어 부녀 납치, 일용품 약탈까지 서슴치 않아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었다.

「공비연혁」에도 “서청의 무차별 행동”이라고 지탄한 대목이 보인다. 이때부터 섬 젊은이들을 단지 젊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죄인이 되어 서청과 경찰이 보이기만 하면 숨기 시작했다. 뒷개 마을에서도 그들이 나타났다면 하필 고기도 잡을 겸 배 타고 바다로 피해 버리곤 했다.

일년간 계속된 이 검속기간에 수백명의 좌익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검거망을 피해 한라산으로 입산했다. 입산 좌익들이 만약 일본군이 항복하고 귀국할 때 파묻어 놓은 무기 일부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현대사에 미증유의 대비극의 발단인 4·3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군이 쓰던 9·9식 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3·1사건 이듬해인 1948년 4월 3일을 기해 십여 군테 경찰지서를 일제히 기습하는 만용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때의 좌익 무장병력은 500여명, 일정한 견식 없이 부화뇌동하여 행동한 자가 1000명 가량이었다고 상기 「공비연혁」은 밝히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5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한 외에 우익인사 5명이 피살되었다. 아직, 경비대가 치안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 경찰 병력으로는 제주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제대로 손이 미치지 않던 때였다.

이렇게 일단 좌익이 무장하고 나서자 주민들은 양단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낮에는 경찰이 오고 밤에는 산에서 왔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호된 고문과 닥달을 당할 줄 알면서도 식량과 기부금을 내라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에 협조하지 않은 자는 가차없이 처형되었으니 뒷개 마을의 이장, 경찰후원회장, 민보단장이 피살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치안의 취약상태를 이용하여 입산 좌익은 또 한번의 모험을 저질러 악화된 사태를 아주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 좌익은 5·10 총선거일에 각

마을에 나타나 협박, 회유, 공갈로 주민들을 선거에 불참토록 공작하였으니, 이로 인해 제주 3개 선거구 중에 2개구가 투표수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경비대 연대장이 암살되고 일부 대원이 반란을 일으켜 좌익에 가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멀리 중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 혼란의 섬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쳤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교통, 통신이 매우 곤란하던 때인만큼 이 섬의 실정이 제대로 파악될 리가 없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건 현상만 가지고 판단했음에 틀림없다. 즉, 제주도는 좌익의 독천장이고 주민의 80%가 그들에게 위협됐다고 남한에서 유일하게 총선을 못치른 2개 선거구가 유독 제주도에만 나타났으니, 신생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그러나 그 사건은 좌익에 의한 선거인 납치였지, 주민의 자발적인 선거 거부는 아니었다. 좌익과 도민을 한통속으로 싸잡아 보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대량의 병력을 투입한 전면적 토벌과정에서 과격한 응징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그 무서운 동란 속에서 쌍방간에 벌어진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에 휘말려 허다한 양민이 희생되었다.

뒷개 마을도 피해가 컸다. 그때 죽은 남편 생각으로 서럽게 눈물 흘려 본 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고씨의 솔직한 고백이다. 어린것들을 키우라, 삼시끼니 걱정하라, 노상 일에 쫓겨 슬픔에 잠길 겨를이 없었노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 보다는 그 불행이 유독 자기 남편에게만 닥친 게 아니라, 온 마을, 아니 온 섬이 다같이 겪었다는 데서 슬픔이 한결 덜했던 것은 아닐까? 행·불행이란 항상 남과 비교했을 때야 실감되는 상대적인 정서일 테니까. 수백명이 한 날에 죽고 마을이 불타던 설날 열 여드렛 날,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을 인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 억울한 주

점들을 신원(伸冤)해 볼 도리가 없는 바에야 그런 식으로 체념해 버리는 것이 속편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천재(天災)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재(人災), 아직껏 금기로 강요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작년에 서울의 어느 여성 잡지의 여기자가 와서 ‘과부마을’로 소문났더라고 경박한 호기심으로 취재하길래 모두들 외면해 버렸다. 육지 관광객들이 작업하는 잠수들을 구경하러 마을에 기어드는 일이 근래 부쩍 늘더니, 이제는 그 억울한 매죽음까지도 한갓 흥거리리로 만들려고 든다고 고씨는 여간 분개하지 않는다.

불탄 마을은 정미소와 잠수들이 풍요를 비는 상당인 도갯집을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잿더미로 화해 있었다. 원래 설촌(設村)된 지 이백년 가까운 마을이라 해묵은 나무들이 도처에 우거져 있었는데 그것들마저 폭도들의 은신처가 된다고 죄다 벌목해 버렸다. 10리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1년간 피난생활을 하고 돌아온 촌민은 여자 300명, 남자 20명 뿐이었다. 인구가 1/3 이하로 줄어든 것이었다. 재만 풀석거리는 허허벌판 한 귀퉁이에 돌성을 쌓고 전략촌을 건설했다. 재속에서 푸리딩딩 불기 먹은 순갈을 줍고 동강난 무쇠 솥을 기울여 끼니를 끓였다. 성 내 귀퉁이의 망루에 아낙네들이 죽창 들고 불침을 켜다. 전략촌의 움막생활은 참담했다. 보리짚을 잔뜩 넣어 이불 대신 덮고 깔고 자는 움막속은 벼룩이 들끓었다. 난리통에 조종사 지은 것은 불태워 먹고 보리농사는 걸러 버렸으니 양식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해상봉쇄로 물질마저 금해 있었으니, 갯가에 나가 돌을 일구어 고동이나 게를 잡아먹고 바닷말에 들나물을 썰거나 보릿겨를 버무려 먹으면서 연명했다. 마소, 돼지가 난리통에 죽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 먹이를 놓고 사람과 가축이 다툰 뻔 했다고 고씨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렇게 돼지 사료를 먹었으니 밥과 똥이 구별이 안되고, 돼지막과 조금도 구별

이 안되는 움막에서 검불 쓰고 잤으니 실로 인축(人畜)의 구별이 어려운 생활이었다. 보리 낱알 한개가 그야말로 금싸라기 같던 때였다. 요즘 외국 수입쌀이 토산쌀을 밀어내고 보리쌀을 천대하여 가축 사료로 쓰기까지 한다는 소문에 고씨는 더욱 어처구니 없어 한다. “원, 시상에, 사람 먹는 곡식을 소, 돼지한테 내주다니! 천벌받을 짓이여” 고씨는 한평생 거르지 않고 보리농사를 짓는 농부이기도 하다.

고추는 커녕 소금도 없어 배추를 닷새쯤 바닷물에 절여 김치라고 먹고 이따금 포구에 멸치때가 들어 집집마다 서너 삼태기씩 잡았지만 소금이 없어 절여두지 못하고 색은 멸치를 발거름에 쓰던 시절이었다. 물질이 허락되자 고씨는 보리밭과 미역밭을 번갈아 부지런히 나들었다. 물웃입은 채 보리밭 김을 매다가 물때가 되면 호미를 이랑에 놔둔 채 갯가로 내달리곤 했다. 산 입에 거미줄 치지 말라고 그 어려운 시절에 미역은 잘 자라 주었다.

전락촌 생활 삼년만에 불탄 집터로 돌아왔다. 폐허 위에 옛 모습대로 집을 세울 일이 아득했다. 흠어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며 남아 있는 축담에 의지하여 우선 헛간부터 복구했다. 못이 없어 굵은 철사를 토막내 썼다. 이렇게 만들어 낸 헛간에 기거

하면서 고씨는 어서 빨리 돈을 벌어 네 간짜리 안채를 본디 모습대로 복구할 꿈을 키웠다. 파도만 높지 않은 날이면, 먹으나 굶으나, 좋은 날이건 궂은 날이건 심지어 한겨울에도 덜덜 떨며 물에 들곤 했다. 말은 안 하지만 청춘 과수의 육신에 왜 뜨거운 욕망이 없었을까? 그러나 고씨는 어린 두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흠어머니로 늙을 결심을 굳혔다. 불현듯 더워지는 몸을 바닷물에 식히며 치미는 한숨을 ‘호오잇!’ 하는 숨비질 소리로 내뿜으며 물속을 자맥질하곤 했을 것이다.

물로야 뱅뱅 돌아진(돌려진) 섬에
삼시 굶어 물허하여
한푼 두푼 모았더니
이어싸나, 이어싸나, 처라, 처라,
여기야 처라

당신이 혹 관광객으로 이 섬고장에 가거든 제발 고씨할머니 같은 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 대지 말기 바란다. 그것은 한땀한 가슴 복판에 다시 한번 못박아 주는 가혹 행위임을 명심하라. 그 비극의 현장, 그 폐허를 일거 오늘을 이룩한 그 숙연한 노동현장은 결코 경박한 흥미거리나 관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월남민 정창희氏의 삶

나이 : 55 세

고향 : 평북 연안의 섬, 외도

가족관계 : 1930년 연안의 섬, 외도에서 작은 배를 가진 영세어농의 집 둘째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10살·8살의 두 딸을 둔 채 돌아가시고 2대독자이신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재혼했다. 남매를 데리고 시집 온 새 엄마는 어떤 일인지 아이를 갖지 못해 재취로 온 지 10년 만에 쫓겨났다. 이때 아버지는 배를 팔아서 그 절반금액을 위자료로 주었다. 그후 대(代)를 꿰을 수는 없다면서 아버지는 세번째의 결혼을 했다. 새부인은 당시 25세의 처녀로 정氏와는 7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행히 언니는 시집을 간 뒤였고, 아버지는 젊은 새엄마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한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1년 뒤 동네 총각에게 시집보냈다.

결혼 당시 정氏 남편의 나이는 20세였는데 정氏와 마찬가지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객지생활을 하던 터였다. 시댁가족이라야 남편보다 5살 위인 형님(시아주버니)과 정氏보다 두살 많은 동서뿐이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림을 했다.

학력 및 결혼전 생활 :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다 4학년되던 해 해방을 맞았다. 해방직후 외

도에는 청우당(천도교), 민주당, 노동당의 세 종류의 당이 생겼다. 그중 노동당의 세력이 가장 컸는데 노동당 주도하에 한글학습(야학)이 열려 많은 외도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부를 하였다. 부인네들은 동네 반장집에서, 처녀들은 국민학교에 가서 수준별(1-2학년, 3-4학년, 5-6학년식)로 나눠 한글을 깨우쳤고 정氏도 역시 학교야학에서 2년간 한글을 배웠다.

결혼 후 생활과 외도의 상황 :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정氏로서는 결혼 직후에 남편이 괜히 무서워 잠자리도 별로 같이 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2년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해 6월 6·25사변을 맞았다.

당시 외도에는 400여호 가구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살았다. 어민들한테는 배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배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작았으나 그중에서도 중선을 가진 집, 소선(뗏배)을 가진 집, 남의 배를 타는 집 등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생활상태는 그 당시 어민 평균치 정도의 생활이었다.

해방이 된 후에는 노동당의 장악하에 합작사(?)라는 기관이 생겨 개인소유의 배를 몰수하

었다. 합작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일하여 공동분배를 했던 기관이었는데 남편은 합작사의 배에서 일을 했으나 시아주버니는 합작사로 넘어가지 않은 작은 배를 가지고 일했다.

6·25 이후 시아주버니는 합작사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인민군으로 징집되었다. 당시 외도 丙에서는 겉으로는 노동당인 척 하면서도 민주당, 청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씨의 친정은 청우당파였고 남편과 시아주버니는 민주당이었다. 반면 동서의 친정은 노동당이었으며 동서의 오빠는 외도 노동당의 위원장이었다.

6·25가 나던 그해 11월경, 유엔군과 남한군이 북한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이 섬 전체에 퍼졌고 각 당들은 서로들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했다.

노동당 사람들은 국군이 밀고 올라오기 전에 섬 丙 민주당원들을 죽이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으나, 미리 알아챈 민주당원들이 먼저 공격을 하였다. 집집마다 백기를 세우게 하고 산발총과 몽둥이를 들고 인민위원장, 서기장, 세포위원장 등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기습을 당한 노동당원의 대부분은 아들에게 붙잡혀 창고에 갇혔으나 몇 사람은 배를 타고 물으로 빠져나갔다. 이를 후도망갔던 노동당원은 물의 인민군을 동원하여 섬으로 공격해 들어와 갇힌 당원들을 풀어주었다. 구출된 사람들은 악에 받쳐 죽창을 들고 다니며 민주당원은 물론 애매한 사람까지도 죽이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집집마다 남자들을 찾으러 다니며 굴뚝속, 아궁이속까지 뒤져 찾아낸 후 죽이거나 잡아가는 살벌한 공포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웃사촌으로 다정하게 지내왔고 서로들 인심은 잃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벌린 참혹한 행동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 정씨의 남편(25세)은 노동당의 민청위원장직을 공격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반격이 시작되자 곧 배를 타고 도망갔다. 정씨는 6개월 된 아이를 업고 동서와 함께 반공호

에 숨어 있다가 충든 남자에게 발각되었지만 다행히도 민청위원장이 조카벌되는 친척이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그때 조카였던 민청위원장은 “고모부(정씨 남편)가 조카를 죽이려는 세상인데 누구를 믿겠느냐, 하지만 살려 주겠다”는 말을 했다.” 국군이 계속 북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섬에 들어온 노동당원들은 4일만에 모두 도망갔고 남편은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곧 정씨의 세식구와 동서는 외도에서의 난리를 피하기 위해 진남포로 나왔고, 외도의 많은 사람들도 섬을 떠났다. 전세는 또 바뀌어 국군의 후퇴에 따라 피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폭음소리는 점차 가까이 들리고 진남포 해안은 함포사격으로 하늘이 시뻘개지는데 배 타고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남편이 겨우 돌아와 주섬주섬 집을 챙겨 부둣가로 나오니 벌써 배는 출발하고 있어 안간힘을 다해 겨우 배에 몸을 싣고 보니 동서는 없었다. 그 뱃머리에서 손을 놓친 것이 영원한 이별이었다.

피난 배가 인천에 도착했으나 아직 수복이 되지 않아 배에서 며칠을 더 지내다 다시 연해 덕적도에 서 몇달을 지낸 뒤 인천에 오게 되었다.

정착생활 : 첫 정착지는 00방직사택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쫓겨나게 되어 월세방을 찾았는데 이로 부터 오랫동안 월세방을 전전하는 생활을 지속하였다. 술단지만 챙겨나온 피난살이라 처음엔 먹고살기가 무섭도록 힘들었으나 남편은 뱃일을 하게 되고 정씨는 구호물자를 운반할 때 흘린 옥수수가루, 밀가루 그밖의 잡동사니를 주어다 먹기도 하고 더러는 푼돈으로 팔기도 하여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였다. 그러나 끼니 때우는데 급급한 생활이라 아들이 소아마비를 앓아도 약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해 결국 불구가 되고 말았다. 정씨는 다시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열심히 일하며 살아보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이 뱃일을 하다 바다에 빠져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난리다 피난이다 하여 정신없이 지내다 결혼초엔 괜히 무섭기만 하던 남편이었지만 새로 정착하여 남편과 정붙이고 살아보려니 사별이라, 눈물

도 나오지 않고 허탈하고 어처구니마저 없었다.

친척도, 의지할 가족도 없이 불구된 7살난 큰아들과 돌지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일, 정씨는 자식들을 먹여살려야겠다는 결심으로 두팔을 걸어 부치고 나섰다. 여자 혼자 몸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했다. 일시에 피난민 정착지가 된 동네는 수도가 채 설치되지 않아 물을 얻느라고 악다구니를 써야 하고, 땀 감은 손수 날라다 도끼로 쪼개놓아야 하고, 또 틈틈이 구호물자 운반열차를 뒤 쫓아 밀가루라도 주워 식량을 해야 하는, 남편 죽은 몇년간은 이리뛰고 저리뛰고 정신없는 생활이었다. 정씨는 주로 생선행상과 조개캐기를 했는데 고생이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큰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몸도 불편하지만 동생을 돌봐 주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그것도 안돼서 정씨는 아침 7시에 나가 밤 8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행상길을 세살된 아이를 업고 다녔다.

멀리는 강원도까지 행상을 나가기도 했는데 여전히 애를 업고 다니야 하니 아기도 엄마도 고생스럽기는 그지없으나, 어쩔 수 없었다.

29살 되던 해, 이웃사람이 여자 혼자 사는데 힘들고 안스럽다고 재혼을 권해 오자 의지할 생각에 46살의 홀아비와 새살림을 정씨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새남편은 젊은 부인에 대한 질투가 심해 술만 먹으면 칼이나 도끼로 위협하며 강짜를 부리는 통에 결혼 1년만에 그동안 장만한 살림등을 팽개치고 자식만 데리고 서울로 도망갔다. 새남편에게 너구도 호되게 당해서 남자라면 질색부터 하게 되었고, 30살 이후에는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일할 수는 있었지만 고향사람이 많은 인천이 고향처럼 그리워 다시 인천으로 내려왔다. 남편없이 사는 처지라 낯익은 고향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했던 것이다.

다시 인천에 와서도 계속 행상을 했다.

32세에 마련한 단칸방의 무허가 집에서 산지도 벌써 23년이 되었다. 그동안 억척으로 일해 번 돈으로 두 아들을 중·고등학교까지 보내고 큰아들을 결혼시켜 양화점까지 차려주었고, 둘째아들도 작년에 500 만원을 들여 결혼시키고 장사 밑천까지 대주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켜 분가시키고 손주를 맡아 학교를 보내면서 살고있는 정씨는 두아들을 남부럽잖게 키워놓았고 자신의 몸도 건강해 일할 수 있어 요사이엔 큰 여한이 없다고 한다.

다만, 고향보다 더 오래 살아온 이동네, 이집에서 정든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사는 것이 소원인데 도시미화로 국가정책상 이곳이 헐리게 되면 이곳을 떠나게 될 일이 애석할 뿐이라고 한다.

이산된 가족 : 6·25때 끌려간 시아주버니는 낙동강전투에서 인민군으로 싸웠는데 후퇴하면서 남한에 남아 있으려다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이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반공포로 석방자인 고향사람에게서 들었다. 휴전 직후 그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우선 안심하면서도 만날 수 없음을 늘 안타까워 하여 살다가 죽었다. 또 부둣가에서 엉겁결에 놓쳐버린 손목으로 인해 영 이별이 되어 버린 동서의 생사가 궁금하기도 하다.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않은지 하나하나 다정했던 얼굴들이 스치지만 이젠 아픔마저도 느낄 수 없다.

정창희氏 /

역사의 질곡속에서 여자의 한 몸으로 맞섰던 삶, 고생과 한으로 점철된 생애였지만 누구보다 더 깨끗하게 버텨온 세월이었다. 정씨는 아직도 일제때 소학교 담임선생님의 이름까지도 낱낱이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시절을 깨끗하게 살아온 의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식들에게 보인 애정과 헌신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준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적 삶을 살아야 했던 월남민 정씨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평화로운 통일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입을 다문다.

여성운동의 장벽

여성노동자들의 기아적 저임금, 비위생적 작업조건, 비인간적인 대우 등은 여기에 나오는 성도섬유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분단 40년의 현실이 압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한 압박과 차별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자 스스로의 외침에 '빨갱이'라는 누명까지 씌워가며 더 극심한 압박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분단 40년의 여성노동현실인 것이다.

최근 성도섬유에서의 부당해고, 폭행, 감금 사태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 더우기 연약한 여성으로서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여성노동현실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족벌 경영체제

성도섬유는 구로 수출 1공단에 제1공장(종업원 1,000명)과 제2공장(약 150명)을 둔 의류제조 수출업체이다. 또 2공단에 성도섬유 부사장 최형로(성도섬유 사장의 아들)가 경영하는 성도어페럴(약 300명)은 톰보이·티버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아래 주식분포 표를 보면 성도섬유와 성도어페럴은 전형적인 족벌 경영체제임을 알 수 있다.

대주주	성도섬유	성도어페럴	비고
최무정	38.2 %	15.8 %	성도섬유 사장
최형로	31.2 %	51.5 %	아들
김명희	3.11 %	5.48 %	며느리
송성숙		5.5 %	처
윤춘섭	7.7 %	1.7 %	전무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이 회사의 임금수준은 85년 전습공 초임 일당

2750원 —부당해고 사건 후인 10일부터 3100원으로 인상—이고 미성사의 경우 3150~3850원 정도로 대부분이 기본급 1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성도섬유의 임금수준은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노동조합을 통해 '85년 임금교섭을 끝마친 공단내의 타 회사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뒤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1)

회사명	'84년 시다초임	'85년 임금교섭표	상여금
성도	2,750	3,100	250 %
대우어페럴	2,600	3,330	300 %
부흥사	2,500	3,360	250~300 %
세진전자	3,350	3,850	400 %
슈어프로덕츠	3,150	4,000	400 %
가리봉전자	3,770	4,430	400 %

한달 평균 잔업시간이 60 ~ 100시간이나 되나 잔업시간에는 100원 짜리 빵 한조각이 지급될 뿐이다. 공휴일에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물론 없고, 철야작업을 할 때에도 야근수당은 일률적으로 800원씩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구정, 추석까지도 연체휴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생리휴가도 없다. 실내 온도 39 °나 되는 작업실 내에 환풍기나 선풍기 하나 없으며 또한 대부분이 변비, 무좀, 위장병 등 직업병을 앓고 있다. 또 품질관리(QC)의 명목으로 반마다 경쟁을 시켜 놓고 그동안 감시자가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속도를 몰래 초시계로 재어 나중에 작업량이 거기에 미달되면 심한 야단을 치기도 한다.

근로자의 50%이상이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는 쥐, 빈대가 득실거리고, 외출은 수·토요일, 외박은 토요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시간마저 통제당하고 있다. 야근이 끝난 후 배고파기숙사 밖의 매점에 가려해도 몰래 숨어서 가야 하고 들키면 야단맞는 서러움을 이들은 겪고 있다.

이렇듯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해 온 이들 사이에 근로조건의 향상과 권리 획득에 대한 자각과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이익에만 급급하고, 노동자를 기계나 종으로 보는 사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 경영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불온시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폭력으로만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사건 개요

3월 10일 : 노동자들이 노조설립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모임은 갖고 있는 것을 눈치챈 회사가 치밀한 계획하에 이날 양평동 교회와 흥제동 성당에서 개최된 노동절행사에 간부를 보내 참석자를 파악했다.

3월 14일 : 구정휴가 기간중 하루가 공휴일이 아니라고 회사는 출근을 요구하였음. 이에 강희

경이 타회사 예를 들어 하루 연장휴가를 반장에게 건의했으나 거절당했음. 그러나 82명의 근로자가 무더기로 결근하자 회사는 강희경이 선동한 때문이라고 해고시킴.

3월 15일 - 4월 6일 :

한편 노동절 행사 참석자들을 불러 행사 참여 경위를 조사한 후 차후 그러한 행사에 참여치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각서를 썼고, 김홍해, 장경림, 박남희 등은 개인생활침해 이유로 각서를 거부하였다. 각서거부자에 대해 회사측은 하루종일 감시하여 집으로까지 미행하였고, 매일 사무실로 불러 “빨갱이와 놀지 말라”는 등 위협과 회유를 하였다.

3월 20일 : 회사측은 한강클럽에서 탕수육과 맥주를 먹으면서 관리직 사원 몇명으로 구성된 어용노조를 결성. 위원장은 나윤규, 부위원장은 장순복 등 주임과 반장급 등으로 구성, 설립필증 받아냄.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밀리에 붙이고, 조합원 가입도 받지 않고, 임금교섭 단체교섭도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령노조 상태에 있음.

3월 23일 : 부당해고된 강희경이 복직요구와 유령노조가 생겼음을 알리는 유인물을 회사 안과 주변에 계속 뿌리자 수십명의 남자사원이 그를 자가용에 강제 납치하여 몇 시간 끌고 다니면서 “너 같은 년은 창녀보다 더한 년이다.”, “산으로 끌고 가자”, “영등포 인신매매하는 데 갖다 팔겠다”는 등 공갈과 성적 모욕, 폭행하였다.

3월 23일 - 4월 5일 : 강희경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퇴근시 유인물을 뿌리려 하자 회사측은 매번 자가용에 끌어넣어 출퇴근시간이 지나면 풀어주곤 했다.

4월 6일 : 4월 임금인상할 기미가 안보이고 어용노조는 가입원서도 받지 않고 있자, 김홍해, 장경림, 박남희는 임금인상과 노조정상화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나눠주고 낭독하였다. 이에 남자 사원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설을 퍼부우며 끌고 나옴. 회사정문 밖에서 이것을 본 강희경이 달려오자 같이 끌고가 4명을 총무과 사무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머리를 책상에 짓찧으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방해고 시켰다.

4월 11일 : 3명 노동부에 복직요구진정서 제출

4월 12일 : 폭행과 불법감금 및 협박 등에 대한 고소장을 남부지청에 제출하였으나 접수증 내주지 않았다.

4월 22일 : 3명 출근했다 파출소로 연행

4월 29일 : 복직 노조민주화를 요구하는 머리띠, 어깨띠 두르고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연행. 하루 종일 파출소에 갇혀있음.

5월 6일 - 5월 22일 : 현장 내 사람들이 탈의실, 화장실 등에 유인물 뿌림.

5월 20일 : 해고자들 운전무를 만나러 회사로 들어가다 불법주거침입으로 파출소로 연행되어 밤늦게 훈방되었다.

5월 23일 : 신건숙 이력서 허위 기재로 부당해고

5월 24일 : 4명 출근했다. 신건숙은 남부서로 연행되어 이틀간 조사받음. 장경림, 김홍해, 박남희는 공단파출소로 끌려감. 종일 갇혀 있으면서 경찰로 부터 뺨을 맞고 순경이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 당함.

5월 24일 - 5월 27일 : 신건숙과 노동법을 함께 공부했던 민성남, 천경미 등을 하루종일 사무실에 감금시켜 협박, 공갈, 가족들에게는 이들이 “빨갱이에게 물들었다.” “ 불순분자들이다” 라고 억압적 언사를 쓰는 한편, 돈을 주고 회유하여 가족까지 동원하여 사퇴강요, 그래도 안되자 형사가 와서 남부서로 연행하여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표강요. 이에 견디지 못한 5명 모두 결국 사표제출하였다.

5월 28일 : 5월 24일 공단파출소에서 당한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치안본부장, 정부민원상담실 앞으로 보냈다.

5월 28일 - 현재 : 부당해고자 전원 매일 출근시도. 사원, 가족들로부터의 폭행과 경찰의 연행 등 계속적인 탄압에 앞서 싸우고 있음.

이 같은 성도섬유의 일방적인 부당해고 및 여성 노동자의 인권 탄압을 접한 각 여성단체 (10개), 대학 총여학생회는 복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도섬유의 부당성에 대한 1차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6월 19일, 복직추진위원회는 종로 1가 톰보이 매장 앞에서 해직노동자의 복직을 위한 톰보이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평화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이를 지켜 보던 많은 시민 앞에서 여성평우회 공동대표 이미경씨, 성도 해고노동자, 학생 등 20여 명이 연행됐다.

남녀평등한 통일민주사회로!

국제매춘사례일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일부일처제의 엄격한 규율에 의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전조로서 신성시되는 한편, 돈만 주면 팔고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 천시당해오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적 성격은 외국에 의해 그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거나 국가존립의 위기에 처할 때 다시 한번 더 처참한 억압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일찌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침탈당했을 때, 일본군대의 성욕 배출구로 악용되었던 '정신대'가 그럭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외회확대를 위하여 '관광기생'을 이용하고 있는 관광정책이 좋은 예일 것이다.

'정신대'나 '관광기생'의 문제는 그동안 몇차례의 조사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그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으나, 기실 민족분단과 6·25와 같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서 등장한 기지촌문화, 양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공주, 양강보, 혼혈아 등 온갖 수모와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민족 비극을 치욕적으로 받아들이 수 밖에 없었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해방이후 70년 초반까지 게재된 신문 기사를 정리한 이 자료를 통해 손가락질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부녀 손댄 미병 4명에 종신 징역 (동아. 46. 3. 13)

최근 미병 4명은 각각 죄로 조선미군군정 재판소에서 종신 징역의 판결을, 1명은 같은 죄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았다.

전대 미문의 만행 - 우리 민족의 수치. 피해 부녀는 3명 - (동아. 47. 1. 11)

7일 밤. 황등역에서 두 기가지 가는 중 호남 열차 안에서 모두 대구 여자인 조선부인 3명이 미군인 4명에 의해 농욕을 당하고 현금과 회중시계를 강탈 당했다.

민족의 격분은 고조 - 미군만행에 여론 비등 - (동아, 47, 1. 12)

호남선에서의 미군인 열차속 만행에 대하여 사회 각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 이러한 불상사가 근절되기를 요청.

범죄 미군은 감금 - 범죄 확인 되면 엄중 처벌 - (동아, 47. 1. 15)

미군 호남선 열차 농욕 사건에 대해 범죄가 확인되면 엄벌하겠다고는 하지중 장의 담화.

눈물 어린 피해자 금녀의 진술 - 미군농욕사건 제 1회 공판 - (동아. 47, 2, 18)

미군 다섯이 몸을 조사하고 손을 대길래 구석으로 피했으나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옆에 있던 조선 남자와 금녀의 여동생을 쫓아내고 의복을 찢고 폭행하였다고 김여인은 진술.

부정미군은 처형 - 맥아더 사령관 율령 보고 - (동아. 47, 3, 4)

가간 안되고 폭행만 성립 - 항간에 화제 일으킨 미군 농욕사건 - (동아. 47, 3, 12)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의외로 가간죄는 성립되지 않아 미군 1명은 징역 16개월, 2명은 징역 10개월, 1명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소녀를 윤간 - 군산서 미군 3명이 - (동아. 54. 11, 11)

6일 하오 5시경 군산역 구내에서 군용열차 경비 중이던 미군 3명이 구내를 지나던 안모양(19)을 강제로 빈 화차 안에 끌어들고 윤간을 자행하였는데 범인 3명은 구속 취조 중이다.

실직 양공주 (동아. 54, 12, 22)

10월달 주한 미군 철수가 본격화하자 실직 양공주들은 후방 도시로 밀려나와 계중에는 개생한 이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이 우왕좌왕 거리를 헤매며 밤의 유혹업소를 무대로 소위 특급창부로 변신하고 있다.

40명을 검거 - 사창굴을 수색 - (동아, 56. 1, 15)

가릉서에서 6일 양공주 40명을 검거, 재판에 회부, 18명이 미군과 동거한다는 미 헌병대장 증명서에 의해 석방되고 22명은 구류.

빨래하던 여인 즉사 - (동아, 57. 3. 13)

경기도 파주군 파편면 덕천리에서 미 24사단 48야포대 소속 성명미상의 군인 1명이 빨래하던 최씨를 농욕하려다 반항하자 총질.

교수형을 집행 (동아, 57, 3. 24)

한국 주둔 기간 살인 및 강간죄로 기소된 미군 병사 랜섬에 대한 교수형이 오는 4월 3일 집행될 것이라고 이곳 미국 당국이 발표했다. 랜섬은 53년 6월 인천에서 한국인 보초사상. 14세 소녀 강간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주한 미군의 집적 지위를 확립하라 - 사실 - (동아, 57, 4, 28)

세칭 양주열차 강간 사건과 파주 사건에 대해 외신은 미국정부 당국자의 말이 '주한미군이 한국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것' 이라 보도. 미군인의 월권, 남권, 불법행동으로 한인이 피해를 당해도 구제할 길이 막연한 현재의 상태에서 행정협정체결에의 노력을 촉구.

흑인하사 소행? - 파주의 위안부 살해 사건 - (동아, 57, 5, 1)

경찰 보고에 의하면 파주군 주둔 '모퉁이' 뒷산서 발행한 술현숙(20. 위안부) 씨 살해범으로 미8군 근무 흑인 하사관의 소행이라는 혐의가 농후하다.

송씨의 강간당한 흔적과 목덜미에 남은 멍으로 미루어 타살이 확실하다는 것.

"존슨" 하사에 종신형 - 한국 여성을 강간 살인한 죄로 - (동아, 59. 1, 11)

'존슨' 하사는 57년 3월 11일 한국 1 항구에서 다른 부인 1명과 세박을 하고 있는 신씨 부인(44) 를 강간하고 '카빈'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치사한 죄로 중노동 종신형을 언도 받음.

10\$ 주고 매음 강요 - 14세의 소녀를 유인 - (동아, 59, 5, 26)

양주군 백순임(36)은 군수물자를 구입할 목적으로 같은 동네 사는 14세

이모양을 끼어 10달러를 받고 '버키' 부대 뒷산에서 토이기병에게 몸을
바치게 했다.

미군이 임부를 때려 조산 (동아, 59, 8, 7)

미 제1기갑사단 소속 '마빈.안토니' 중사(33)는 부근에 거주하는 박애주
(24)씨와 금전거래 관계로 시비끝에 폭행. 이로 인해 임신 8개월의 박씨는
그만 조산을 하였다.

미측 태도는 소극적 - 정부, 개별적으로 '行協' 체결계획 - (동아, 8, 29)

'주한 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미정부와의 행정협정은 미측의 소극적
태도로 체결의 실현이 불가능. 정부측에서는 긴급한 것부터 개별적으로
협정체결을 계획.

토이기 군인이 칼질 - 동거하는 위안부에 - (동아, 59, 10, 20)

토이기 상사 '바팍기덜' (26)은 동거하던 위안부 이선녀(23)가 박인들과
음주하는 것을 보고 '칼빈' 대검으로 이씨의 등을 찔러 약 10센티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휴가 업고자 체포 - 한국 여인 사발사건 전모 - (동아, 60, 1, 7)

중서부 전선에서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가 2명의 접대부가 미군인에 붙들려
용서를 빌었으나 전기면도기로 가지 사발을 당했다. 피해자의 말과 소식통
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중대에서는 중대부근에 들어온 창녀를 체포시
3일간의 서울 휴가를 주다는 약속이 있었다 한다.

두 여인 사발사건에 미 7사단서 성명서 (동아, 60, 1, 7)

미 제7사단은 '사발사건'에 관한 성명을 발표. 사건에 관해 완전한 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과 징계처분에 대해 아직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냈다.

양공주가 데모 - 미군이 취체(取締)하다 1명 사망으로 - (동아, 60, 10, 27)

미군에게 취체당한 양공주 2명이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 내리다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이 참변소식을 들은 이태원부근 양공주 60여명이 항의데모를 전개.

왜 그들은 데모를 했나 (동아, 60. 10. 27)

이태원 부근 밀집해 있는 약 800명의 양공주 중 점심동거를 앓는 300여명은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한번 취체에 걸리면 열흘의 구류를 살아 1주일 수입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망한 강씨는 그런 생활을 청산하려 결혼 약속한 한국남성과 만나고 나오다 취체되었다 한다.

이태원 양공주를 경찰서 단속키로 (동아, 60. 10. 28)

취체차에서 떨어져 죽은 강씨 사건 계기로 미 8군에서는 취체를 헌병이 하지 않고 경찰에서 전담해 줄 것을 의뢰. 강씨 가족이 나락나면 위자료도 지불 하겠다고.

창녀단속권 요청설 미8군 사에서 부인 (동아, 60, 10, 30)

미8군 사령부 보도처에서는 미 8군이 이태원 일대의 창녀 단속을 한국 경찰에 전담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

미병사 걸어 고소 - 15세 소녀에 난행기도 - (동아 60, 12, 15)

인천시 김순갑 부인은 미병사가 자기집에서 그녀에게 폭행하고 딸 15세 귀옥예양을 난행하려 했으나 옥예양이 비명을 올리자 남자 2명이 현장에 달려와 난투끝에 사태가 방지되었다고 미군병사를 걸어 고소.

미군이 여인 희롱 말리는 순경구박 (동아, 61. 4, 5)

2일 하오 군산시 금동 공회당 앞 노상에서 미 공군 802공병대소속 '하버트·엘링'(20) 일등병은 지나가는 여인의 손목을 잡고 희롱하다 비명을 듣고 달려가 저지하던 군산서 이명희(34) 순경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 부상 입힘

접대부를 죽여 - 미군 구속 - (동아, 61, 5. 7)

미 통신 수색 중대 파견대 소속 '보인' 하사는 동침하던 접대부

도경자(25)양을 손발로 묶고 목을 졸라 죽이고 도주중 경찰에 구속.
살인동기에 대해서는 합구중이나 시간제 동침으로 인한 돈관계로 육신
과신하던 결과로 보인다.

위안부에 폭행 치상 - 낙태까지 시킨 미 사병 조사 (동아.62.2.25)

파주군 문산리 미 제1기병사단 공병대 소속 '윌리엄·그리'(30) 사병은
위안부 신영숙(24)양과 동침 후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70달러가 없
어졌다고 신양을 의심코 구둑발로 마구 차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
고 임신 4개월의 태아를 낙태케 했다. 이 사실을 조사중인 미 제19수
사대에서는 낙태가 구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병 폭행 또 2건 - 위안부 때리고 행이 칼로 찔려 (동아.62.3.8)

3일 밤 미 제38여단 유도탄대대 소속 '오비더스' (24) 하사는 동거하
던 위안부 최옥자(37)씨가 생활비를 더 요구하자 무조건 구박,중상을
입혔다. 5일 밤 미 제7사단소속 소방대원 이기용씨가 길가에서 소변보
던 중 정체를 모를 미군으로부터 칼질을 당해 전치 약 2주의 수계처의 상
처를 입었다.

위자료 낙태비 6백10만원 청구 - 파주 여인 낙태사건에 (동아.62.3.8)

한국인권옹호협회 박한상변호사는 주한미군 소청사무소에 대해 미군
에 폭행, 낙태까지 당한 신영숙씨 치료 및 위자료로 6백1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

미병이 위안부 살해 - 사고후 같이 도주 않는다고 (동아.62.5.17)

충남 대덕군 장동리서 위안부 유춘자(22)양이 미 833 중대소속 '젠
슨' 1등병과 언쟁하다 권총에 허리와 목에 2발을 맞고 사살되었다.

사랑의 배신 : 폭행 - 미군이 위안부 손발 묶고 (동아.62.4.22)

약 15개월 전부 먹 동거하다 변심하자 '재트' 상병에게 생활비 요구하
자 뒷산으로 끌고가 구두끈과 새끼줄로 강양의 손발을 묶고 입을 새
끼로 막은 후 발길잡하고 달아나다.

여인에 추행 혐의 - 미군인을 조사 (동아. 62 . 6 . 26)

미국당국은 지난 24일 새벽 의정부의 한 여인에게 추행한 한 미군을 조사중 이라고 발표했다. 미군 헌병대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지적된 미군을 조사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 힌

여인에 폭행 (동아. 62 . 7 . 1)

29일밤 경북 왜관읍 에 사는 이순만 (여)씨는 미 44공병대대 소속 미군인으로부 터 폭행당해 열일곱 바늘 꿰맨 상처와 네바늘 꿰맨 상처를 입었는 데 미군헌병대에서는 폭행혐의의 미군인을 구금, 조사중 이라고 밝 힌.

양공주 15명 적발 (동아. 62 . 8 . 18)

17일 밤 서울 용산 특정구역을 벗어나 길가에서 유괴행위를 하던 양공주 15명을 적발, 시립부녀보호소에 수용조치하였다.

시골 처녀 네 유인 - 위안부로 팔려던 두 소녀 입건 (동아. 63.2.18)

18일 상오 서울 남대문서는 시골 처녀 4명을 취직시켜 준다고 꾀어 미군위안부로 넘기려던 십대처녀 주 거부정 엄. 박 2명을 영리를 위한 유인혐의로 입건했다.

총질로 끝난 3각관계 - 변심한 여인 죽고 연적은 중상(동아. 63.5.13)

12일 낮 서울 후암동 에서 미제1기갑사단 근무 버틀러(36) 하사가 양 부인 고경옥(30)씨와 펠리그리니(20) 1등 병에게 권총을 난사, 여인은 사망, '펠' 1등 병은 혼수상태이며 자신도 현장에서 자살했다. '버' 하사는 6개월간 입원한 새에 동거하던 여인이 정을 옮긴 것에 격분, 이러한 참화를 빚었다.

미병이 여인 사살 (동 아 . 63 . 5 . 13)

동두천에서 유부녀 석용례씨가 부대에서 파이프를 1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명령을 어기자 위협발사가 서씨의 하복부에 명중 즉사.
미군 또 행패 - 여인 짓밟아 중태(매일.64 . 5 . 14)

화대를 내지 않아 화대를 요구하자 행패를 시작. 술집 주인 여인이
배상을 요구하자 김씨의 하복부를 발로 차고 비틀어 놓고 흠뻑 밟
고 세수대야로 구타, 중상을 입음.

시공장의 몸부림- 햇볕 잃은 왜관 석전 특수 적선 지대(매일.65.1.10)

생활고가 윤락 원인의 60%, 처녀로서의 첫발 디딤이 55%, 불취학이
30%, 25세 미만이 50%인 불행한 이들이 버는 외화 (월 6천원 - 1만5천원)
는 피보다 더한 아픔의 산물. "꾸짖기 전에 이해를 - - -" 이것이 시
공장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바깥세계에서 바라는 단 한가지 원망이다.

울분에 찬 항의행렬 - 죽음으로 대어든 양공주의 순정 (매일.65.2.13)

3백여 위안부들이 가냘픈 어깨에 상여를 메고 미군 영내로 들어닥쳐 매
정했던 이방인을 상여앞에 무릎을 꿇게 한 항의와 울음의 장례식이 11일
하오 왜관을 석전동 "캠프·캐롤"에서 벌어졌다.

안 맞았다 해라 - 위안부 때린 미헌병이 매수 공작 (매일.65.5.29)

위안부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미헌병이 2백불을 줄 테니 안 맞
았다고 부인하라고 매수 공작.

잇달은 미병 행패 - 봉덕동 색시 놓으라고 칼질, 왜관선 두 위안부 때려 중상
(매일.65 . 10 . 24)

한밤중에 술기있는 미군이 애기 업은 부인을 뒤따르며 괴롭히다가 부인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머리를 칼로 잘라버리고 중상을 입히고 끌고
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부인 어머니의 손가락을 칼로 찌르는 등 인근 주민을
공포속에 몰아 넣었다.

말리는 경관에게 칼부림 (매일신문, 65.2.12)

용산구 후암동에서 미병사가 '레지' 김양을 꺼안고 희롱하자 말리는 손님에게 의자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다 신고 받고 온 경관에게 얼굴 등 칼로 자상을 입혔다.

미병 또 탈선 - 한국 여인 두들기고 시계 뺏다 (매일신문, 65.9.9)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희용(여.48)은 동리 앞에서 이유없이 미군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한 후 손목 시계를 빼앗겼다.

한미 행정 협정 (매일신문, 67.2.9)

미 공무중인 범법 미군의 재판 관할권 - 한국에 단 한국 검찰측은 항소 할수 없다.

미군 여행 첫 케이스 - 한국 여인에 주먹질 (매일신문, 67.2.14)

미군이 동침을 거부한 위안부 김양의 뒷머리와 얼굴을 약 20분간 때리고 실신 시킴.

범법 미군 처리에 난관 - 장성급의 공무증 발급 않아 (매일신문, 67.

2.21)

한미 협정이 발효 되었으나 범법 미군에 대한 공무 집행증의 발급이 미군 당부자들이 (장성급의 공무 집행증만 유효) 꺼리거나 시일을 지연 재판 관할권 결정에 지장.

콕스 하사 구속 보류 - 조건 해석 싸고 한미간에 대립 (매일신문, 67.

3.16)

미군은 콕스 하사가 이미 미군 당국에 구속돼 있다고 주장 한국측의 이중 구속 조치는 불가능하므로 신병 인도는 미국측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 미군측은 "구금은 일정한 시설안에서의 연금 상태다", 우리 측은 "일정한 제한 구역안의 감금 상태"가 구금이다 라고 이견. 합동위원회가 미국측의 주장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현장에서 외 즉각 구속만이 구속 수사 가능하게 된다.

적너 희롱 하던 미군 - 짝차로 집 잡아 (매일신문, 67.10.7)

대구 시내 봉덕동에서 미군이 길을 건너던 이양을 희롱 하다가 운전 부
주의로 집 두 채를 차력으로 밟았다.

미국인 기소 키로 - 권총 중상 입힌 (매일신문, 67.11.24)

미국인 '엘리스'는 충무로에서 호신용 권총을 팔자 동덕여대 최양을
전치 4개월의 중상 입히고 음식점에 들어가 권총으로 위협했다.

위안부 때려 중상 - 폭행 미군...상해로 입건 (대전, 68.1.16)

미 제 902공병대 소속 '맥그 바드 토마스' 소위가 미군 위안부 이미
자(25), 조철성(29)양을 이유없이 구타, 3주일의 중상을 입혀 한미
행정협정 22조 3항을 적용 입건할 예정.

이태원 위안부 살해 사건 (매일신문, 68.4.6)

서울 지검 윤중수 검사는 살해 용의자 스몰우드 상병 (22.미 8군,
19지원단 본부 중대)을 소환, 심문. 스몰우드는 혐의 사실 모두 부
인.

두 미국인이 폭행 - 위안부 셋 중 한명은 중태 (매일신문, 68.4.23)

미 군 사관단 소속 제임스·위겐즈(30), 윌·알메시(29) 등 2명이 대구
시 대봉동에 사는 위안부 신주자(37)씨를 이유없이 구타. 이를 말리
는 같은 위안부 유옥순(25), 김해경(25) 에게까지 구두를 신은 채
방에 들어가 욕설을 퍼부으며 집단 폭행,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힘.

미 군속 추행 기도 - 여학생에 차 태워준 다 피어 (매일신문, 68.7.18)

12일 오후 9시 30분경 왜관읍 석정 2동에서 집에 가던 박 모(15)양을
캠프·캐롤 엔진 제생과 군속 스파 크스와 동부대원 김기령(35)이
유인, 대구방면 지천면 덕산동에서 희롱 하려다 반항하자 그대로 달
아남.

미 군용백 속에 여인 시체 - 야간 열차 선반 위에, 23세 가랑 단발머리.

금천서 실어?(매일신문, 68.9.17)

13일 오전 5시쯤 부산역에 도착한 서울발 13열차(여명호·보통급행)
3등 객실에서 미군 야전용 '백' 안에 들어 있는 23세 가량의 단발머리
여인의 피살체 발견.

열차 내 여인 시체, 미군 주둔지 광범한 수사 (매일신문, 68.9.18)

부산 시경은 시체 해부 결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인 뒤 변소의 오물
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백'에 넣고 부패를 덜기 위해 간장을
끼얹은 후 화물로 가장, 탁송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

위안부 손 양으로 굳혀 (매일신문, 68.10.2.)

경찰은 열차 내 여인 시체의 신원을 대구 대봉동 미 8군 후문 앞 '파라
다이스' 홀에 있었던 종업원 손남숙(26) 양으로 보고 손양과 동거했던
공군 C씨등 5명과 미군 하사 J씨의 소재 및 신원확인에 나섬.

군 백 여인사 결정적 근거 못잡아 (매일신문, 68.10.5)

경찰은 백 속 여인 시체가 위안부 손남숙(26)양이라는 심증 뿐 지문 감식
에 애로가 있어 범인 수사가 부진 상태에 빠지고 있다.

위안부 떠밀어 중태 - 경찰 폭행한 킹 상병을 입건 (매일신문, 68.10.9)

킹 말리 상병은 5일 밤 10시 위안부 유미화(28)양이 흑인과 동침을 약속
했다고 폭행했으며, 흑인과 국제 결혼한 변수복(30) 여인을 2층서 떠밀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8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입건 조사중이다.

위안부 얼굴 찢러 - 술 취한 미군이 바에서 (매일신문, 68.10.24)

22일 대구시 봉덕동에서 미군 사고문단 소속 스테펜스·윌리엄(22) 병장이
같이 술 마시던 변형숙(31) 여인을 컵으로 찢러 길이 3센티 가량의 상처
를 입혔다. 신고를 받은 남대구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섬.

손 양과 다른 여인 - 군용백 여인 시체, 경찰서 판정 (매일신문, 68.10.26)

경북 도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백 속의 여인 시체가 손 양
이 아님을 단정. 그러나 확인을 못해 석연찮은 수사를 종결지었다.

미 장교숙소사건 - 여종업원 감금 허위자백 강요 - (경기매일, 69.1.1)

29일 이스컴 사령부내 장교숙소에서 '리드 어' 하시는 자신의 야만적 행위와 부당한 처사에 대한 진정서에 날인했다는 이유로 최숙자여인 등 400여명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해고 협박 끝에 진정서 내용에 대한 허위를 자인하는 백지자인서를 받아냈다.

두 미군의 행패로 위안부 세명 중경상 (매일신문, 69.2.18)

16일밤 대구 봉덕동 창너촌에서 아브립 일병이 위안부 권모(22)양과 이모(21)양에게 폭행. 같은 시각 태봉 3동 위안부 구모(29)여인은 팔택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미군으로 부터 두들겨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위안부 때려 중상 - 술 취한 미병이 시비걸어 - (매일신문, 69.2.23)

21일밤 12시쯤 왜관에서 술 취한 미44공병대 콜만·지미엘(26)병장이 강경희(21)양 방문앞에 소변을 본다고 만류하는 강양을 마구 때려 고막파열 중상을 입혔다. (미 헌병대로 연행되었음)

30여 미군 집단행패 - 몽둥이·칼 휘둘러 5명이 중태 - (매일신문, 69.4.2)

30일 충남 서산군 태안면 동문리에서 미44포대 제4미사일 부대소속 백호인 병장, 콜트 상병, 캘리아상병 등 4명이 술에 만취해 방뇨를 하고 접대부 유규향(25)에게 추태부리는 것을 김인배(23)씨가 부대에 연락 스키키퍼와 짝으로 30여명의 군인을 불러 칼과 몽둥이로 2시간동안 휘둘러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위안부 때려 중상 (매일신문, 69.4.25)

22일 상오 10시 20분쯤 대구 봉덕동에서 에드워드·로빈슨 상병이 위안부 문모(22)여인을 때려 전치 10일의 중상을 입힘.

위안부 동맹이 - 미군이 시샘으로 폭행 (매일신문, 69.6.24)

전에 동거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다고 머리 높이까지 번쩍들어 시멘트 바닥에 내동맹이 쳐 전신 타박상과 뇌진탕을 입고 생명이 위독.

美軍基地村

○「한층의 달력을 뒤
하여」란 제명의「마카르
니·체스틴」이 아니라도
모른다. 이일대 모든사건
은「들이」생겼다. 이런
문과 여자의 숨이 있는
의인과며 매개체는 무엇이
하정생인」으로 돌아

신화의 성립상으로 기
다한다. 주삼과 부대원의
전. 출입을 물고도 장
사가 안달을. 영금대
으마고 Y(음)의 돈을
빌린 어느 비군이 불배
전속을 가다 들길이었
었다. 「집」을 가트마
의(원도우)를 깨었다. M
가 오고 불안을 면했
에선 미국인들 약사파
본 사탕물로 없을까요
한 노장 위안부는 허를
내놓았다. 따라서 주민을
은 그들의 삼을「서비스
「용역에 의한 당당하
?)의한을이란 주장이
사실 石田重만해도 6
백여 위안부, 10개「나이
로·클링」16개「습」기타
점포들이 벌어들이는 한
달수입은 적어도 1천만
원, 연간약 40만달러의 상은
조히 되리란 변명되모서

- ①住民의 生態
- ②慰 安 婦
- ③美軍에의 依存
- ④美軍과의 去來
- ⑤「나는 억울하다」
- ⑥韓美行協 전후

흔「일 망정.

었다. 미병의 호수미니를

삼시에 변화가 로된 石田 으나 「군기물과」 비슷한

轉屬날 한눈팔다간 큰코다쳐
經濟的對位는 곧人權의對位

돈줄은 자꾸 약아져

[illegible]

▲지구의 이만기는 基地村의美軍區

地村의美軍圖



이러므로

의와 특권을 띠고서 가
 일정한 면을 통
 시한다. 미군 한민족
 러한 정부가 가엾음
 1대3에서 1대4로
 심할수록 미군의 부대
 불아갈 밖에. 사소한
 비가 쌓여 큰 우박이
 으로 더러는 인종차별
 을 업고 끄집어 내지
 「로까지 확대되고는
 불의. 이용자들은 정
 타한다. 경제전대(對位)
 「판제는 곧 「인권의대
 「인권」이었다. 「쓰는
 「아는자」 사이의 정
 합수가 못지나고 인
 인것처럼, 이 문제 제
 「한민족」이란 말
 「정거」중의 일이다
 「한민족」을 「한민

美軍基地村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으로써 법인의 독립을

볼과했다. 이 사건은

도 아무보람없이 흐지

미군당국이 「증거불충분

물들이 아예 성의있는
사조차 많았음은 고사

는 고 사
채권 이 사
마저 전 인
저 후 영
받 영 수
아 수 중
내 기

美軍不正에 경치는건 韓國人
借用證 불태워 業者망치기도

러워졌다고 Y씨는 발
굴렀다.

(英)

△ 卜

408

15.59

(4)

1.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7; 278: 1021-1026.

10



▲이제 도리어 韓國人을 통치는 焚軍을 통의 한국표지가 무색하다.

- ① 주민의生態
- ②慰安婦
- ③美軍에의依存
- ④美軍과의去來
- ⑤「나는 억울하다」
- ⑥韓美行協 전후

미군과 위안부 투석전 - 홀에서 술 마시다 시비 발단 (경기매일, 69.9.

25)

위안부 이양이 술잔으로 얼굴을 막는 것을 목격한 위안부 자치회 회장이 이를 말리자 회장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미 영내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했다. 이를 본 동료 위안부 1백 여명이 미 헌병과 충돌, 위안부 10명이 부상. 부평 경찰서는 위안부 16명을 연행, 소란 혐의로 즉심에 회부했다.

홀에다 연막탄 던져 - 미군 2명 입건, 한때 소동 빚어 (경기, 69.10.8)

2명의 미군이 맥주홀에 연막탄을 던져 술 마시던 1백 50여명의 미군과 1백 여명의 위안부 종업원들이 구토와 대피 소동을 벌였다.

안방 침입 꾸지람에 미군이 폭행 (매일, 70.3.31)

28일 오후 6시 30분쯤 왜관읍 석용2동의 장황자(30) 여인이 미 8군 캠프·캐롤, 휠·휠리프 병장에게 전신을 구박당함.

미군들 여인에 행패 (경기, 70.5.1)

30일 하오 5시 10분께 파주군 임진면 선유 4리에서 외출 나온 미 제2 보병사단 7기과 대대 소속 불 (27) 병장 등 5명의 미군 흑인들이 사소한 시비끝에 윤희란 (38) 여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이발용 면도날로 온몸을 마구 찔렀으며 이를 말리던 김호진(32)씨에게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혀 생명이 위독. 한미 합동수사반은 이들을 특수폭행치사상 혐의로 입건.

미군 폭행 잇달아 - 팽성에서 주민에 행패 (경기, 69.10.10)

위안부에게 두명의 미 병사가 동시 성교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구박, 상해.한편 K-6 미 23격점 지원단 사령관은 영내의 신문 배달을 금지 출판물의 자유마저 박탈.

미군 폭행에 항의 - 위안부 8백 여명 데모 취재 (경기, 69.12.4)

위안부 자체 풍기 단속중 소 양이 미 제7사단 xx정비대 소속성명 미

상의 미군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온몸에 무차별 구타당해 안면을 못쓰게 됐으나 신고를 받은 미 헌병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미군 폭행 잇달아 (경기, 70.2.14)

동두천의 위안부 정 여인은 미 1군단 38포병대 정문 앞에서 술취한 미군 하사로부터 무조건 안면과 복부를 구타당해 2주의 상해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출혈이 심해 임신 3개월이 유산됐다.

도둑 누명 씌워 심한 폭행 - 미군인 부부 (경기, 70.7.31)

이웃집 식모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집단 폭행 후 심신한 것을 높이 5미터나 되는 2층에서 던져 중상을 입힘.

원심 개고 고법에 환송 - 부평 미병 위안부 살해 사건 (경기, 70.12.1)

대법원 형사부는 미군 '22 미 제335 중장비 정비 대대 상병' 피고인의 위안부 살해 사건 징역 5년 선고를 개고 고법에 환송.

장동리서 위안부 피살, 범행 흑인병 자살 기도 - 300여 위안부들 '프레카드' 들고 데모 (대전, 71.7.18)

대덕군 북면 장동 4리 살던 위안부 김현숙(23)양이 박박상을 입고 알몸의 피살체로 발견되고, 연금되어 있던 범인 '바비·조·존슨' 하사는 자살을 기도. 16일 오전 11시부터 위안부 270여명이 "살인자 물려가라. 부대장은 전 장교와 같이 나와 김여인의 살해사건에 대해 전체의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이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프레카드를 앞세우고 밤 12시까지 데모를 벌였다. 부대측에서는 최루탄으로 대응.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중앙지인 동아일보 1945 - 1963년까지이며, 지방지로는 당시 가장 객관적 사실 보도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기매일신문과 대구 지방의 매일신문 1964 - 1970년까지이다. 그리고 양궁주의 피해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71년의 대전일보를 첨가시켰다.

너

하루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first system, featuring a melody line and lyrics in Korean.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Chords are indicated by letters like C, F/A, C/B, Dm, and Am.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partially obscured by the musical notation.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econd system, continuing the melody and lyrics from the first system. It includes similar musical notations and chord indications.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partially obscured by the musical notation.

에레나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카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시집갈 열아홉살 꿈을 꾸면서
피난왔던 순-이-가
다홍치마 순-이-가 이 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순이 순-이 오늘-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누-나

기지촌

1. 서산마루에 시-들어지-는 지쳐버린 황-혼-이
창에 드리운 낡은 커튼 위-에 회미하게 넘실거리네
어두움에 취해버린 작은 방안에 무슨 불을 밝-혀둘까
오늘밤에는 무슨 꿈을 꿀-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2. 가로등 아래 장-님의 노-래 아무한테도 들-리잖고
자동차소리 개-짖는 소리에 뒤섞여 흩어지네-
시계소리 내 귀전을 스치더니만 창 밖으로 새-어나가
오늘밤에는 무슨 꿈을 꿀-까 아무것도 들리지않네
3. 밤-거리엔 낮-선-사람들 떠들면서 지-나가고
질은 화장의 젊은 여인네들이 길가에- 서성대네
작은별들이 하-나들 흩어지더니 하늘끝으로 달-아-나
오늘밤에는 무슨 꿈을 꿀-까 아무것도 남지않았네

금강산 같이 구경가리라

1. 백두산 함께 올라가리라 금강산 같이 구경가리라
민중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민족이 통일되리라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공장에는 기쁨 넘치는
참 평화와 평등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 현해탄 함께 헤쳐 나가리라 태평양 함께 헤쳐 나가리라
정의가 샘솟는 그 세계가 되면은 인류가 형제되리라
억눌린 자 자유함을 얻으며 가난한 자 기쁨 춤추는
참 평화와 평등이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가거라 삼팔선아

1. 아아—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아아—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같이 고향땅을 가고 오건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헤멘다.
2. 아아— 꽃필 때나 오시려느냐 아아— 눈을 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는 고갯길 산새여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예 성 강

1. 예성강 푸른물에 물새가 울면 말하라 강물이여 여기 젊은 이 사람들
말하라 강물이여 너만은 알리라 겨레 위해 숨져간 그때 그자리 그사람들
2. 멸악산 높은 봉에 바람이 불면 말하라 산악이여 여기 젊은 이 사람들
말하라 산악이여 너만은 알리라 겨레위해 숨져간 그때 그자리 그사람들
3. 무등산 높은 봉에 바람이 불면 말하라 금남로여 여기 젊은 이 사람들
말하라 금남로여 너만은 알리라 민주위해 투쟁한 그때 그자리 그사람들

여성평우회란

여성 평우회는 평등·평화의 이념을 내걸고 1983년 6월 18일 창립된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과 빈곤의 원인, 실태를 조사연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하는 여성이 존경받는 새문화를 창조하며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본회는 공동대표3인과 집행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현재 회원은 150여명입니다. 재정은 회원의 찬조비와 회비로 운영되며 조직부, 교육부, 홍보부, 사회부(근로여성부, 빈민여성부), 연구부, 문화부 등의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 1983. 6. 18 창립총회
- 1984. 2. 26 인천 만석동 『큰물』 공부방 개원
 - 3. 14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자료집 발간
 - 6. 15 「여성평우」 창간호 발간
 - 8. 8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가입
 - 9. 22 제1기 여성학교실 개강
 - 10. 21 「여성평우」 제2호 발간
 - 10. 26~27 제1회 여성문화큰잔치
 - 11. 21 여대생추행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 연합 공동 대처
 - 12. 22~23 부산카톨릭센터 초청 여성문화큰잔치
- 1985. 1. 7 제2차 정기총회
 - 3. 8 '85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연합 개최
(주제: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 3. 15 「여성평우」 제3호 발간
 - 3. 22 제2기 여성학교실 개강
 - 4. 27 25세 결혼피직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 및 서명운동 전개
 - 5. 10 「제3세계 여성노동」 발간

- 6. 9 성도섬유해고 노동자를 위한 복직추진위원회 참가
- 6. 15 성도섬유해고 노동자를 위한 토크쇼 불매운동 시작
- 6. 22 창립 2주년 기념대회
(주제: 분단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

우리의 지침

1. 우리는 남녀를 차별하는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해 일한다.
1. 우리는 남녀 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일한다.
1.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일한다.

여성평우회는 언제나 모든 여성들의 벗이 되고자 합니다.

여성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모색합니다.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자신이 여성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본회에 찾아 오시거나 서면으로 연락바랍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하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성평등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
성평등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
성평등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노동자가 만드는 노동자의 책

함성 1

함께 사는 우리들

...볼트를 조이고 미싱을 돌려 옷을 만들고, 용접을 하여 기계를 만드는 데에는 기능공이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남에게 밝히는 것은 씩스럽기만 하다. 그렇지만... 이 글들은 우리의 생생한 아픔의 기록이자 생활을 같이하는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다.

특집 함께 사는 우리들

나이와 직종이 다르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역할은 달라도 몸으로 일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함께 사는' 다섯 사람이 겪는 아픔과 보람의 기록!

- | | |
|---------------|-----|
| 월급날 일기 | 김복동 |
| 아줌마 미싱사가 되어 | 권경순 |
| 작업복에 흘려보낸 삼십년 | 정현구 |
| 작은 꿈나무를 키우며 | 이은숙 |
| 악마의 축복 | 유재홍 |

현장사례 1

소모임에서 노동조합까지
(경신평업 노조결성과정)

현장의 목소리

- ①소식지에서 듣는다
대우어패럴/대한마이크로전자
경동산업/진도/대우자동차
- ②철망 너머로 주먹밥을
(대우자동차 농성자 가족의 기록)

만 화/못생긴 얼굴
르 뽀/버스 안내양의 애환
공동서평/끝내 이기기 위한
진실된 목소리 외
시 /이치백·정명자·김형선
수 필/석정남·이해자·장남수

값 2,500원

創批新書 63

제3세계 여성노동

여성평우회 編

현대 서구여성운동의 이론서를 통하여 우리는 여성운동이
님의 다양성에 접하게 되었고 특히 여성문제 해결에 관한 사
회구조적 접근방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여성노동의 현실에 대한 제 3 세계적 시각 및 구체
적 분석의 결여로 인하여 충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지 못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미비점을 이론적 수준에서 보완하고 여
성노동 특히 제 3 세계의 여성노동현실에 대한 관심과 논의
를 확산하기 위한 단서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기획된 것이다.
<값 4,000원>

創作과批評社

362-7577·9867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변형운 외

미군정과 민족통일의 좌절

분단사회의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고찰/진덕규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송건호
경제적 측면에서 본 남북분단의 역사적 경과/박현채
미군정 시기의 학생운동/이재오
민족분단과 통일운동 전후기에 있어서의
언론의 대응과 그 한계/최민지

분단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고찰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조형, 박명선
분단과 산업구조의 변화/변형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최장집
재야양심세력과 직업정치인/이호철
해방 40년과 농촌여성 지도정책 고찰/김주숙
분단시대의 여성운동/이효재

민중의 분단극복의식과 통일의지

80년대 소설의 분단극복의식/백낙청
분단극복 '화해' 의지의 문학/구중서
한국민족과 기독교의 문제-민족분단을
넘어서는 길/박순경
민족통일과 메시아 통치/김용복

분단의 범주적 인식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김진균, 조희연

歴史와 基督教·第8輯

分断現實과 統一運動



민족 분단의 역사적 원인.....	姜萬吉
분단 전후의 정치사적 이해.....	韓貞一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분단.....	閔丙天
한국 민족 통일 운동사론.....	宋建鎬
민족 분단과 가족문제.....	李效再
민족 분단과 기독교의 대응.....	金容福
독일 교회와 통일 문제.....	李三悅
[부록] 남북한 관계 연표.....	편집실

民衆社

빈민여성과 아동에 관한 자료집

1. 도시빈민여성문제를 보는 시각
2. 도시빈민여성의 사례
3. 도시빈민아동을 보는 시각

부록 1. 만석동 큰 물 공부방 경과,
프로그램, 사진

2. 도시빈곤문제 참고문헌

여성평우회